

겨울철 인기 만점 포인세티아 재배관리요령

장정희 생활지도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현자기술지원과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화려한 포인세티아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분화이다. 포인세티아 수요는 매년 팔 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겨울 꽃시장의 주요 상품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 품종에 대한 높은 로열티 지불로 화훼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포인세티아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여 로열티 경감과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인세티아는 단일성 식물로 보통 자연일장이 줄어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꽃눈을 형성한다. 이 시기는 일장단축과 함께 온도도 영향을 미치며 일장조절에 의한 연중출하가 가능하다. 겨울철 출하를 목표로 재배중인 포인세티아는 적정 온도유지, 환기에 의한 습도관리, 병해충 방제 등 환경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하 1~2주 전, 온도 낮춰야 선명한 잎 색 두드러진다.

포인세티아는 1일 평균온도가 23~26℃ 범위에서 가장 잘 자라고, 평균온도가 10℃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조건에서는 잘 발육하지 못한다. 모종은 pH5.5~6.5의 산도와 통기성이 좋고 보수력이 있는 용토에 정식하는데 일반적으로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뿌리가 배수공으로 나올 만큼 활착이 되면 보통 10cm 화분은 4~5마디, 15cm 이상의 화분은 5~8마디를 남기고 손지르기를 하고, 분지력이 약한 품종은 1~2마디 여유를 두고 손지르기를 한다. 포인세티아는 생육이 왕성한 편으로 새순이 지나치게 자라면 잎이 찢어지기 쉽고 관상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손지르기 후 새순이 2.5~5cm 정도 자랐을 때

생장억제제를 살포하거나 관주한다. 생장억제제는 초장조절의 목적이 있으나 잎 색이 진해지고 줄기가 단단해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생장억제제의 작용에는 유효성분의 농도, 배지, 처리시기, 처리전후의 온도와 습도, 처리방법 등이 영향을 미친다.

생장억제제의 처리는 온도가 낮은 가을부터 겨울철에 재배할 때는 낮은 농도로도 가능하며 개화 소용일수는 짧아진다. 초가을 출하용으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 재배할 경우에는 높은 농도로 하거나 여러 번 처리한다. 꽃눈 분화 이후에 처리하면 개화가 늦어지고 포엽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단일처리 이후에는 생장억제제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포인세티아는 대체로 잎 색이 진한 품종이 두상관수보다 저면관수가 비료량을 적게 요구한다. 출하기 1~2주 전에는 비료를 끊고 야간 온도도 16℃ 정도로 낮추어야 포엽의 색상이 선명해진다.

물 관리가 품질을 좌우한다.

포인세티아는 물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되는 분화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품질을 좌우하는 아래 잎을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관수방법은 식물체의 잎이나 포엽에는 직접 물이 닿지 않고 토양에만 관수가 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풍이 안되는 그늘, 다습 환경은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고, 관수는 일정한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토양이 건조할 때 하는 것이 좋다. 저면 관수 시스템을 갖추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포인세티아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으로는 온실가루이와 담배가루이가 있으며 생태와 방제방법은 비슷하다. 노랑색 끈끈이를 이용하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방제하되 잎의 뒷면에 약제가 묻도록 철저히 살포해야 한다. 작은 뿌리 파리와 충채벌레가 종종 문제를 일으키므로 정식 용토에 입체형태의 약제를 혼입하여 초기에 방제한다.

포인세티아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은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의한 뿌리 및 줄기 썩음병, 연부병 등이 있다. 식물의 상처, 가공, 연약한 표피를 통하여 침입하므로 청결한 식물과 배양토를 완벽하게 위생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출하관리

포인세티아의 포엽(꽃턱)은 착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육하므로 화포가 완전히 착색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보일 때 출하한다. 출하할 때는 받침대

를 세워 화포를 균등하게 배치하고, 안쪽으로 세워서 상품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받침대의 색깔은 농적색이나 흑색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하할 때는 투명한 아스테이지로 싸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장거리 수송이 가능하도록 화분전체를 포장하여 상자에 넣어서 출하한다. ㉞



▲ 레드벨(육성품종)



▲ 클로리아(육성품종)



▲ 로리판(육성품종)



▲ 출하대기

우리품종 포인세티아 전시모습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08년 12월호〉